

집중진단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주요공약 검증 (4) 제주 그린 AI데이터센터

40MW 규모 조성... 관건은 '전기'와 '물'

공공·민간 연계 투자... 재생에너지 100% 활용 목표도, 우선 0.3MW 실증 추진... 하반기 중 예타 신청 계획 전문가 "재생에너지만으론 한계... 용수 조달도 문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내건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은 농수산업·관광·문화·우주·바이오 등 도내 전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AI 연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AI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위 지사는 '제주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공약하며 유연성 자원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민간 투자를 연계한 40MW 규모 구축과 함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모델을 적용하고 데이터센터를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제주 특화산업의 앵커 인프라로 삼겠다는 목표다.

위 지사의 공약에 발맞춰 제주도도 지난 6일 인공지능 데이터 전환 분야에 5년간 1조3480억원을 투입해 국내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를 연결하는 '제주 글로벌 AI 허브'와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그린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비전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단계이다.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현재 기획 설계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으며 하

반기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우선 실증사업으로 연말까지 0.3MW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가 AX 산업 생태계를 실현할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장철원 제주도 미래성장과장은 지난달 열린 제주포럼 '그린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제주 AX 전략 구상' 세션에서 "0.3MW급 AI

생태계를 조성해 운영한 후 성장 엔진으로 확인이 되면 40MW급 그린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이지만 이미 전력과 용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제주포럼 세션에 참가한 고우찬 카카오 클라우드&인프라 총괄리더는 "간헐성이 있는 풍력·태양광으로는 전력을 감당하지 못해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와 함께 풍부한 용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만으로 40MW 규모의 전력소비를 24시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지적이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균일하게 전력을 소비하는 상시 부하인 반

면, 제주의 재생에너지 전력은 특정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간헐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와 보조 전력, 전력망 보강 방안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또한 열을 식히기 위해 막대한 양의 용수가 필요한데 상수원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에서 냉각용수를 어떻게 조달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조웅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미래사업실장은 "기본구상 용역에서 전력은 한전을 통해 사전 계통 승인을 받았고,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시에서 제일 시원한 곳 주말인 11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을 찾은 어린이들이 분수대에서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민선 9기 제주도정, 첫 행정시장 공모 마감 제주시장 4명·서귀포시장 3명 경쟁

민선 9기 제주도정 첫 행정시장 공모 마감에 7명이 지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양 행정시장 지원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주시장 공모에 4명, 서귀포시장 공모에 3명이 각각 응모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응모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한 뒤 행정시장 임용 후보자를 선정해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어 인사위원회가 임용 후보자의 적격성과 우선 순위를 심의해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는 이들 중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를 지명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인사청문회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장 공모 지원

자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직 도의원과 국장급 전 고위 공직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귀포시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해양수산연구위원 출신 A씨는 이번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성곤 제주지사의 당내 경선 때부터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운영지원본부장과 선거사무장, 인사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아 위 지사의 당선에 도왔다.

A씨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읍지에서 응원하고,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기자

'여름감기' 파라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세 영유아층 중심 확산... 코로나19 검출률도 ↑

'여름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근 제주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가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사업(K-RISS)을 운영한 결과 도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3주(5월 30일~6월 6일) 25.9%, 24주(6월 7~13일) 35.0%, 25주(6월 14~20일) 31.6%, 26주(6월 21~27일) 41.2%, 27주(6월 28일~7월 4일) 33.3%이다. 이는 전국 평균(23주 18.0%, 24주 25.9%, 25주 24.6%, 26주 25.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0~6세 영유아층에서 가장 높은 검출률을 기록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급성 호흡기감염병 원인균으로, 주로 늦은 봄부터 여름철(5~8월)에 유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 최근까지 낮은 검출률을 보이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27주 검출률이 12.5%를 기록해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감시결과를 보면 전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4주간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감시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제주, 주말 태풍급 강풍으로 피해 속출... 4명 / "빛 못갠졌어요"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대... 6명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

제주삼다수가
총 5억 원의 제주여행비를 씁니다!

삼재패를 검색하세요! 🔍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

자세한 내용은
삼재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